

# 2017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전형

## - 인문사회계열 I 문제지 -

대학	학과(학부)	수험 번호	성명

###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십시오.
3. 답안지의 수험 번호 표기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십시오.
4.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십시오(숫자, 수식, 표 등은 예외).
5. 답안지의 첫째 줄부터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6.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하십시오.
7. 답안을 작성할 때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시오.
8.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9. 답안은 반드시 문항별로 지정된 구역에만 작성하십시오.
10. 시험 종료 30분 전부터 답안지 교체는 불가합니다.
11.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바닥에 내려 놓으시오. 시험 중 휴대폰(전자기기 포함)이 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지정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함.

※ 수정액,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함.

※ 상기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응시자 성명 \_\_\_\_\_ (서명)



CHUNG-ANG UNIVERSITY

## [인문사회계열 I]

□ 다음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나는 가끔 생각하기를 마당이 있는 집이 내게 있다면 주변의 돌들을 모아서 돌탑을 쌓고 싶다고 소망한다. 그리고 나의 아이들과 아내에게도 돌탑을 하나씩 쌓을 것을 부탁하고 싶다. 산사에 올라가다 보면 길가나 바위 위에 누군가 쌓아올린 돌탑들처럼 나의 작은 마당 한쪽 한쪽에 돌탑을 쌓아 놓고 싶은 것이다. 아래에는 큰 돌이 필요하고 위를 향해 쌓아 갈수록 보다 작은 돌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서 구해 온 돌들은 각각의 크기와 모양과 빛깔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반듯한 것도 있고 움푹 팬 것도 있을 것이다. 마치 여러 종류의 꽃과 풀들이 자라나서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그 돌들은 서로 엮고 엮혀서 하나의 탑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돌탑을 쌓아 본 사람은 돌탑을 쌓는 데에는 잔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불안하게 기우뚱하는 돌탑의 층을 바로잡아 주려면 이 잔돌을 끼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잔돌을 꺾어서 탑은 한 층 한 층 수평을 이루게 된다. 못생긴 나무도 숲을 이루는 한 나무요, 쓸모없는 나무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보잘것없고 작은 잔돌이라도 탑을 올리는 데에는 꼭 필요하다. 돌탑을 쌓아 올리면서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잔돌의 소중함을 아는 일이다.

(나)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관측되지 않은 자연 현상을 관측하면, 여러 가지 법칙이나 관측 사례를 근거로 그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추론한다. 또 형사나 탐정은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범죄의 동기나 범인이 어떤 유형의 사람일지를 추론한다. 이처럼 어떤 '사실'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법칙이나 관측 사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사실이 왜 발생했는지 추리하는 것을 '가설 추리'라고 한다. 가설 추리에서는 이미 발생한 현상 E가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E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가설 C를 제시한다. 이때 세운 '가설'을 '추론적 가설'이라고 한다. 가설 추리란 E가 발생했을 때 C를 가정하면 E가 가장 잘 설명될 경우, E라는 현상이 발생한 것을 보고 C가 그 원인일 것이라고 추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 추리를 평가할 때는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경쟁 가설'은 없는지, 있다면 제시된 가설은 그 경쟁 가설을 합리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지 역시 고려해야 할 점이다. 가설 추리도 개연성이 낮을 수 있다. 만약 처음 세운 추론적 가설이 경쟁 가설을 물리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 가설 추리는 개연성이 없는 논증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설 추리는 일회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추론을 통해 가장 개연성 있는 가설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교육적 함의가 큰 논증이다. 그래서 퍼스는 가설 추리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 엄행수는 똥을 저서 밥을 먹고 있으니 지극히 불결하다 하겠으나 그가 밥벌이하는 일의 내용을 따져 보자면 지극히 향기로운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몸가짐은 더럽기 짝이 없지만 의로움을 지키는 자세는 가장 깨끗하다. 그러한 뜻을 확대해 나간다면 비록 만종의 녹봉을 받게 되더라도 지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깨끗한 가운데 불결한 것이 있고 더

러운 가운데 청결한 것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음식에 곤란을 당해서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양 나보다 곤궁한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엄행수를 생각하면 견디지 못할 것이 없다. 참으로 마음속에 도둑질할 뜻이 없는 사람이라면 엄행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확대해 나간다면 가히 성인의 경지에도 이를 것이다. 대저 선비가 궁한 생활이 얼굴에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이고 뜻을 얻어 출세하매 온몸에 표가 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저 엄행수를 보고 얼굴을 붉히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나는 엄행수를 선생이라 부르는 것이다. 어찌 감히 벗이라 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엄행수에 대해서 감히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예덕선생'이란 칭호를 바친 것이다.

**(라)** 20세기 미술의 특징은 무한한 다원성에 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재료와 어떤 형식으로 작품화하면 미술적 창조로 인정되고, 심지어 창작 행위가 가해지지 않은 것도 '작품'의 자격을 얻을 수 있어서,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을 객관적으로 구분해 주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단토의 '미술 종말론'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미학 이론 중 하나이다. 단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과 달리 미술의 '종말'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미술 작품이 될 수 있게 된 개방적이고 생산적인 상황을 뜻한다. 이전 시대까지는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의 구분은 '무엇을 그리는가?' 또는 '어떻게 그리는가?'의 문제, 곧 내용·형식·재료처럼 지각 가능한 '전시적 요소'에 의존하여 가능했다. 반면, 20세기에는 빈 캔버스, 자연물, 기성품 등도 '작품'으로 인정되는 데에서 보듯, 전시적 요소로는 더 이상 그러한 구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제 그러한 구분은 대상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인 행위에 의존할 따름이다. 비평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수라시 쿠솔윙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이 작품은 1965년형 폴크스바겐의 엔진과 핸들, 바퀴, 샤프트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그 무렵 나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면허를 따 놓고 오 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엔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외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실제적인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 갔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나는 초보 주재에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 도로로 접어들었다.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다음 날 밤에 광주로 내려올 수는 있었다. 그런데 밤에 고속 도로를 달리다 보니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 알갱

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려니 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쳐 죽은 잔해였다. 그것을 닦아 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그러나 세차 기계의 물살에도 엉겨 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 비린내는 몸서리쳐지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시속 10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서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이 그제서야 찾아왔다.

**(바)** “나는 자네가 하 사장을 이겨 먹을 줄 알았다. 느물느물하게 다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자네는 하 사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천박한 수전노, 병적인 양생주의자, 대롱으로 세상을 보는 대롱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강이 구부러지지 않을 수 없다는 옛말이 있다. 그래, 하 사장에게 그런 흠절이 있기는 하다. 그렇다면 그러는 자네는 하 사장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

“.....”

“자네는 하 사장 찾아갈 때 고급 위스키도 사고, 요릿감 쇠고기도 사 가지고 갔는가?”

“네. 하도 깨죽거려서 제가 본을 좀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네 책을 화장실에 처넣었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다.”

“저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하 사장 같은 사람으로부터 돈 쓰는 법을 배울 나이는 지났습니다.”

“배울 나이가 지났다는 데 문제가 있다. 배울 나이가 지났는데도 배우기를 거절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자네는 너무 고상한 일을 하느라고 발밑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인가?”

“.....”

“사람이란, 이렇게 보기로 작정하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려고 작정하면 저렇게도 보이는 것이다. 자네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자네가 화를 내고 있는 상황에는 하 사장에 대한 고려가 송두리째 빠져 있다. 자네는 하 사장을 지금과 같은 시각으로 보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쪽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자네는 말이야, 어떨 때 보면 공부를 좀 한 사람 같아도 어떨 때 보면 철부지도 그런 철부지.....”

“.....”

“우리가 직선이라고 여기는 것이 과연 직선이겠는가? 혹시 곡선의 한 부분을 우리가, 자네 말마따나 대롱 시각으로 보고는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인가? 자네는 혹시 큰 곡선을 작은 직선으로 본 것은 아닐 것인가?”

**(사)** 세상에는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물에 대해 의견을 내고, 의욕을 느끼고, 그것을 갈망하거나 기피하는 것과 같이 스스로 하는 의지적 활동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

는 것은 본디 자유로운 것이어서 아무런 제약도,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 재산, 평판, 권력 등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닌 것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다른 것에 예속되어 있는 부자유한 것으로, 남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본래 다른 것에 예속된 것을 자유로운 것으로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면 장애에 부딪히고 좌절하게 되어 자연히 신과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아) 슈퍼마켓이 쓰는 교묘한 수법은 “특가 판매! 치약 4천 원, 단 고객당 5통 이내”라는 광고 문구이다. 이 광고 문구를 보는 순간 소비자는 감탄을 한다. “오, 이런 가격이면 열 통, 스무 통씩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군.” 정말 이런 것을 막으려고 5통으로 제한했을까? 슈퍼마켓이 5통의 구입 한도를 설정해 놓은 본심은 소비자들이 바로 그만큼의 치약을 사도록 유도하려는 데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소비자들이 ‘닷컴 내림 효과’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5통의 구입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소비자로서 하여금 바로 그 수준에 닷을 내리게 유도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런 닷 내림 효과가 정말로 발생한다면 충동구매를 하게 만드는 작전은 멋진 성공을 거둔 셈이다. 치약을 사러 슈퍼마켓에 간 소비자가 처음 닷을 내린 구입량은 한 통 혹은 많아야 두 통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치약 가격만 낮춘 경우에는 여러 통을 구입할 가능성이 적다. 반면에 5통의 구입 한도를 설정해 놓으면 그 소비자의 닷이 5통으로 옮겨지는 결과가 빚어진다. 소비자는 5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이만큼의 치약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이는 그의 닷이 1에서 5로 옮겨졌다는 것을 뜻한다.

(자) “아저씨는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시오. 나이는 나보담 많구 대학교 공부까지 했어도 일찌감치 고생살이를 한 나만큼 세상 물정은 모릅시다. 시방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시오?”

“조카!”

“네?”

“네가 방금 세상 물정이랬지?”

“네.”

“앞길이 환하게 띄었다고 그랬지?”

“네.”

“환갑까지 십만 원 모은다구 그랬지?”

“네.”

“네가 말하려는 세상 물정하구 내가 말하려는 세상 물정하구 내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세상 물정이란 건 그야말로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중략]

“젠장, 아저씨두……. 요전 『킹구』라는 잡지에두 보니까, 나폴레옹이라는 서양 영웅이 그랬답디다. 기회는 제가 만든다구. 그리고 불가능이란 말은 바보의 사전에서나 찾을 글자라구요. 아, 자꾸자꾸 계획하구 기회를 만들구 해서 분투노력해 나가면 이 세상 일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나요? 한 번 실패하거든 갑절 용기를 내 가지구 다시 일어서지요. 칠전팔기 모르시오?”

“나폴레옹도 세상 물정에 순응할 때는 성공했어도 그것을 거스르다가 실패를 했더란다. 너는 칠전팔기해서 성공한 몇 사람만 보았지, 여덟 번 일어섰다가 아홉 번째 가서 영영 쓰러지

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 술한 사람이 있는 건 모르는구나?”

“그래두 인제 두구 보시우. 나는 천하 없어도 성공하구 말 테니……. 아저씨는 그래서 더구나 못써요. 일해 보기도 전에 안 될 줄로 낙심 먼저 하구…….”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는 대상을 평가하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 있다. 각 제시문에서 ‘평가의 기준’과 ‘그 평가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비평’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을 서술하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20세기 미술을 감상할 때 요구되는 태도를 제시문 (바)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사)의 논지를 제시문 (아)의 설명과 제시문 (자)의 ‘조카의 주장’을 바탕으로 비판해 보시오. **[20점, 400~420자]**